

마을금고의 영향과 역할 - 해방촌 우주생활협동조합 빈고를 중심으로

김이경

1. 연구제목

마을금고의 영향과 역할 - 해방촌 우주생활협동조합 빈고를 중심으로

2. 연구목적 및 문제의식

본 연구의 목적은 마을금고가 지역 및 예금주 혹은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금(자본)의 유통경로가 지역, 사회, 환경,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흐름에서 지역과 개인은 어떠한 방향을 선택해야 할지 모색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하여 선행연구 및 현지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첫째, 현재 사회에서 은행은 어떤 역할을 가지는가. 둘째,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마을금고 혹은 신용협동조합은 어떠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 마을금고가 지역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할 것이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잇따른 금융위기 속에서 또 다른 길과 가능성을 모색해 볼 것이다.

3. 선행연구 및 비교사례

1)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는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 번째 범주는 거시적인 틀로 현재의 경제 위기를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데이비드 하비의 『신자유주의』 및 그의 저서와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등과 데이비드 맥넬리의 『글로벌 슬럼프』를 참고했다. 두 번째는 이론과 일상적 실천을 연결할 수 있는 작업을 강조하는 홍기빈과 장석준의 『살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 등과 『신자유주의의 탄생』을 검토하여 지역 사례 분석에 유용한 틀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은행과 대출 시스템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인류학자 데이비드 그레이버의 『부채 그 첫 5000년』과 『가치이론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등을 살펴보며 가치이론 등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마을은행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는 이론을 살펴보는 것 대신 기존의 지역은행 및 지역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는 신흥 사례를 살펴보는 것으로 선행연구를 보충할 것이다.

2) 비교사례

① 일본의 NPO 은행(은행)

일본의 경우 오랫동안 불황을 겪으며 지역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뤄졌다. 지방정부 및 지역은 메이지유신 이후 산업화와 도시문제가 발생하자 조나이카이가 형성되었고, 마치즈쿠리가 보편화되었다. 이에 지금까지 풀뿌리 운동이 지역과 결합되어 지역 공동체 운동의 활기를

더하고 있다. 경제불황과 지역 커뮤니티의 결합으로 NPO(Non 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조직) 은행이 곳곳에 생겨났다. NPO 은행은 일본 금융청이 허가하는 은행은 아니지만 비영리조직으로 일정정도 마을 금고의 역할을 맡고 있다. 시민들로부터 소액 출자를 유도하여 대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통 은행과 같이 금융상품에 대한 투기나 무리한 확장 등을 지양한다. 무엇보다 금융감독기관의 통제보다는 출자자와 시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다.

비교사례로 일본의 모모뱅크와 미래뱅크를 살펴볼 것이다. 모모뱅크의 경우 나고야시 나카구 후지미마치에서 2005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지역 사업의 대출기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입출금 시스템이 아닌 대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며 지산지소(Local Money for Local Consumption)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도쿄 에도가와구에 위치한 미래뱅크는 은행이나 우체국에 맡긴 돈이 다른 곳에 대출되어 원자력 발전, 댐건설, 도축도로 건설 등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거나 제3세계의 빚을 증가시키는 개발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시민은행이다.

NPO 은행의 경우 출자 총액은 1억 엔 안팎이라고 한다.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기관이 수용하지 못했던 지역의 세세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 일본의 비인가은행 사례를 살펴보면 큰 틀의 이론이 제시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극복지점을 찾으며 본 연구의 지역 사례와 비교할 것이다. 사례 조사를 위해서 두 은행을 직접 다녀온 지인의 자료를 검토하고 인터뷰를 할 것이 관련 자료 검토 및 사이트를 참고할 것이다.

② 영등포구 다람쥐회

국내에서 비교할 수 있는 사례로는 영등포구에 위치한 다람쥐회가 있다. 다람쥐회는 1968년 산업화 시기 노동자들의 임금을 모아 만든 경제 협동체다. 1972년 신협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에서 최초로 정식인가를 받은 신용협동조합이 되어 1000여 명의 조합원이 있는 조합으로 성장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영등포 근처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노동자들이었고, 이들은 신협을 통해 셋방 보증금을 대출하는 등 다양한 도움을 주고 받았다. 하지만 독재정부의 감시와 탄압으로 1976년에 신용협동조합을 해산하고 비영리은행으로 지금까지 지역은행의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는 영등포의 소비자협동조합, 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지역 시민단체 등을 만드는 데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입출금 및 상품들을 마련하여 은행의 기능도 맡고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의 배경에서 탄생한 다람쥐회와 경제불황과 실업의 시대에 만들어진 빈고의 비교 작업을 통해 이 둘의 차이점과 공통점 그리고 두 곳이 결합되어 나아가야 할 지점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4. 연구내용

I. 들어가기 - 연구배경

2008년 9월은 전세계가 혼란에 빠진 달이다. 월스트리트가 생긴 이래로 가장 큰 규모의 자금을 보유한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였고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은행 다섯 곳이 연이어 무너졌다. 이후 제너럴 모터스, 시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굴지의 기업과 은행이 금융위기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세계의 자분을 지배하고 있는 은행, 보험사, 기업이 연이어 파산하자 이에 대한 여파로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등 세계 곳곳의 기업이 부도났다. 각국의 정부는 긴급히 구제금융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시장의 자율과 자본의 자

유로운 이동을 기본으로 하는 현재의 시스템에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세계 공황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가 기업들에게 투자한 돈은 무려 20조원이나 된다.

잇따른 도산에 언론과 학계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파이낸셜 타임지와 같은 언론에서는 현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며 다른 시스템의 등장을 촉구했고 학계에서는 자유시장경제의 무너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학계와 언론의 고민과 근본적인 질문은 곧 사라졌다. 정부는 공공재정을 기업 파산을 막기 위해 썼고, 기업을 국유화했다. 이는 세금이 자본의 유지를 위해 쓰인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국가가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한 것이기에 결국 긴축재정과 동시에 빚(대출)의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말았다. 결국 기업은 회생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책임이 떠넘겨졌다. 각국에서는 복지, 보건, 교육, 환경 등에 대한 예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회복되어갔다.

이는 한국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상황이다. 작년 부산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은행의 파산이 줄지어 터졌다. 은행이 요동치자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이 점점 축소되고 경제는 다시 경직되기 시작했다. 저축은행으로 드러난 내용은 리먼브러더스 및 세계의 각국 은행의 파산 내용과 다르지 않다. 복잡한 금융상품의 등장,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기고 투자하는 예금주 및 투자자들, 지급준비율을 믿고 문어발식 확장 사업을 펼친 은행의 무리한 시도 등은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하지만 금융위기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러한 분위기에 따른 보통 사람이 가지는 ‘공포’다.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노조 해체, 실업, 구직 등은 사람들에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신감을 뺏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정부의 개입이 제한된(배제한) 자유시장이라는 현 시스템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기업의 구제금융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더불어 은행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은행에 들어간 나의 ‘돈’은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사회와 개인은 계속된 경제 불황 속에 적절한 사회보장을 받지 못할 것이며 점점 더 돈에 끌려다닐 것이다. 그리고 소수 기업들의 투기와 그들이 만든 복잡한 금융상품에 휩쓸려 투기꾼들에게 자신의 노동력과 노동시간, 임금을 고스란히 내놓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전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축소하여 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인 ‘우주생활협동조합 빈고’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시작되고 있는 마을금고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은행의 역할 및 빈고를 이용하게 된 배경 및 변화 지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우주생활협동조합 빈고의 배경

1) 삶의 불안과 주거 불안정 - 빈집과 빈고의 탄생

대부분은 보통 사업을 하거나 집 전세금(혹은 매매)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이용한다. 특히 자신이 거주할 집을 마련할 때는 큰돈이 필요하며, 이는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이다. 큰돈이 필요할 때 은행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자신의 신용등급에 따라 혹은 자산의 규모에 따라 빌릴 수 있는 돈이 한정되며 은행이 지정한 이자에 맞춰 빌릴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의 경우 거둬들인 불황과 불안한 사회 구조로 인해 대부분의 재테크가 부동산

으로 연결되면서 집값, 전세 보증금은 매년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목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젊은이들은 은행 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다. 더불어 규모가 크지 않은 돈을 재테크하고, 또 대출에 좀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한다.

우주생활협동조합 빈고는 은행이 하는 역할을 다른 방식으로 풀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빈고는 생활 수단 중 가장 기본적인 ‘주거’를 핵심적으로 다룬다.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월세를 살더라도 최소 몇 백만 원부터 시작해 수 천 만원, 또는 억 단위 규모의 큰돈이 필요한데, 이를 생활의 방식과 다른 감각의 금융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더불어 집 보증금 대출에 필요한 부분 외에는 은행과 같이 다양한 대출 상품을 만들어 은행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빈고의 출발은 ‘주거’와 ‘돈’에 방점이 찍혀있다. 이는 빈고를 만들게 된 취지문에서도 잘 드러난다.

집은 곧 돈이다.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벌고,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산다. 재산, 소득, 지출, 저축, 대출, 투자, 상속 등 돈과 관련된 생활의 중심에는 집이 있다. 처음에 보증금 없이 쪽방과 고시원에서 시작해서, 어떻게든 보증금을 마련하고 월세방으로 옮겨 가서 저축을 통해 보증금을 늘려가다가, 전세집을 구해서 결국 월세에서 해방되고, 계속해서 저축과 투자를 늘리고 대출을 더해 마침내 내 집 마련, 그 후 부동산 투자를 더 해서 늘어난 자본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 이 과정을 차례차례 밟아 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표준 경로이고, 발전 단계이다. 그 사람의 현실 계급은 이 경로에서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에 따라 규정된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돈을 벌고 집을 사는 것으로 점철되어 있다. (우주생활협동조합 빈고 취지문)¹⁾



(사진 왼쪽: 병역거부의 날 행사에 참여한 빈집 구성원들, 2011년 5월 15)

(사진 오른쪽: 2011년 겨울 마을잔치 풍경)²⁾

이와 같이 우주생활협동조합 빈고를 만들게 된 배경으로 ‘빈집’이라는 공간이 빠질 수 없다. 빈집은 용산동 2가에 자리 잡은 주거공동체를 일컫는 말이다. 보통 ‘빈집-빈마을’이라고 표현한다. 2008년에 유럽 여행을 다녀온 지음, 살구 커플이 유럽의 다양한 공동주거 및 여행자와 손님을 환대하는 공간들을 방문한 뒤 한국에 돌아와 오직 자신들이 소유하는 공간이 아닌 다른 누군가와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즉 자신들의 신혼 전세 보증금을

1) 출처: http://binzib.net/xe/index.php?mid=bingo&document_srl=9891

2) 출처: bibzib.net 게시물

공동주거 공간 비용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에 동의한 지인들 몇몇이 지음, 살구 커플과 함께 목돈을 기꺼이 내어주었고, 큰 거실에 방 3칸, 그리고 큰 옥상이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다. 두세달 이상 사는 사람은 ‘장기투숙객’, 일주일 정도를 머무는 사람은 ‘단기투숙객’³⁾이며, 공동공간을 위해 은행 혹은 재단에 대출을 했다면 같은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끼리 이자를 분담해서 내는 방식을 만들었다.

월세, 대출이자, 공과금을 나눠 낸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동주거공간과 차이점은 없지만, 다른 측면에서 빈집의 특징이 드러난다. 빈집과 같이 함께 주거를 해결할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출자자가 늘어났고, 해방채, 계단집, 낭만집, 공부집 등 다양한 이름의 빈집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또한 집들끼리는 회의를 공유하기도 하고, 집의 대표들끼리 모여 회의를 열고, 마을잔치를 열거나 각종 평화 집회나 투쟁현장에 함께 가기도 한다. 또한 연령, 인종, 등을 따지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든 열려 있는 공간이다. 즉 집을 소유한 사람 혹은 보증금을 낸 사람이 주인이 아닌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 모두가 주인임을 강조하는 주거공동체이다.



(출처: 2012 한 살림 청년 아카데미 - 빈고 발표 자료 (2012년 5월 10일))

2) 우주생활협동조합 빈고의 탄생과 현재 상황

빈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늘고, 이와 같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돈의 흐름을 담당할 통로, 금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빈집은 최소 30만원부터 시작하는 월세를 공동주거, 공동분담의 방식으로 10만원 대의 금액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까닭으로 보다 많은 사람이 안정된 주거를 보장 받고, 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공간을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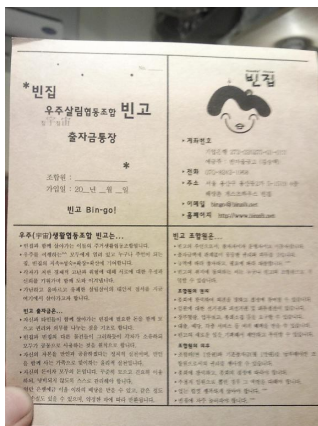
3) 장기투숙객은 한 달에 15만 원정도, 단기투숙객은 하루에 3000원~4000원 정도를 내면 이곳에 머물 수 있다.

누기 위해 공간 확장이 거듭 요구되었다. 따라서 집을 더 구할 수 있는 출자금이 필요했으며, 이를 낮은 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역할을 매개하기 위해 2010년 1월부터 ‘빈마을 금고’를 만드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그리고 빈고의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 및 빈집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출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했고, 빈마을 금고에서 시작하여 우주생활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2010-12-31	2011-12-31	증감	비율
조합원수	37	88	+51	237.8%
출자총액	135,530,000	111,900,000	-23,630,000	82.6%
자산총액	330,315,818	275,100,589	-55,215,229	83.3%

(출처: 2012년 총회 자료집)

빈고의 탄생에는 주거공간을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강력한 동인이 작동한다. 주거공간을 공유하며 이를 확장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소득을 함께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간의 대출이자와 개인 대출이자 및 각종 분담금으로 내부에서 잉여금을 발생해 이를 조합원이 동의하는 곳에 투자가 아닌 지출을 하는 방식이 합의된 것이다. 이에 2010년에 37명으로 시작한 조합원 수는 1년 후 88명으로 늘었고, 현재는 100명이 넘는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출자는 초기 출자자들이 반환을 하여 조금 줄어들었지만 1억 원 이상의 출자금과 1억의 차입금을 포함하여 총 2억 7천 만원의 자산총액을 유지하고 있다.



해방촌 빈마을 쿠폰은 아래와 같이 빈너원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물로 주고 받을 수 있으며, 빈집의 분담금으로 낼 수 있으며, 빈가게에서 물건이나 의자리를 구입할 수 있으며, 빈고에 출자하는 선물이 될 수 있으며, 해방촌 빈마을 쿠폰은 2012년 3월 28일 빈고 총회에서 발행되었으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10000

2011년 한 해 꾸준히 출자해주시어 감사합니다. 꾸준히 출자해주시신 덕분에 빈고와 공동체들이 살이 넉넉해질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해를 한 번씩은 자신의 재정 계획을 하면서, 빈고를 생각해주세요.

해방촌 빈마을 쿠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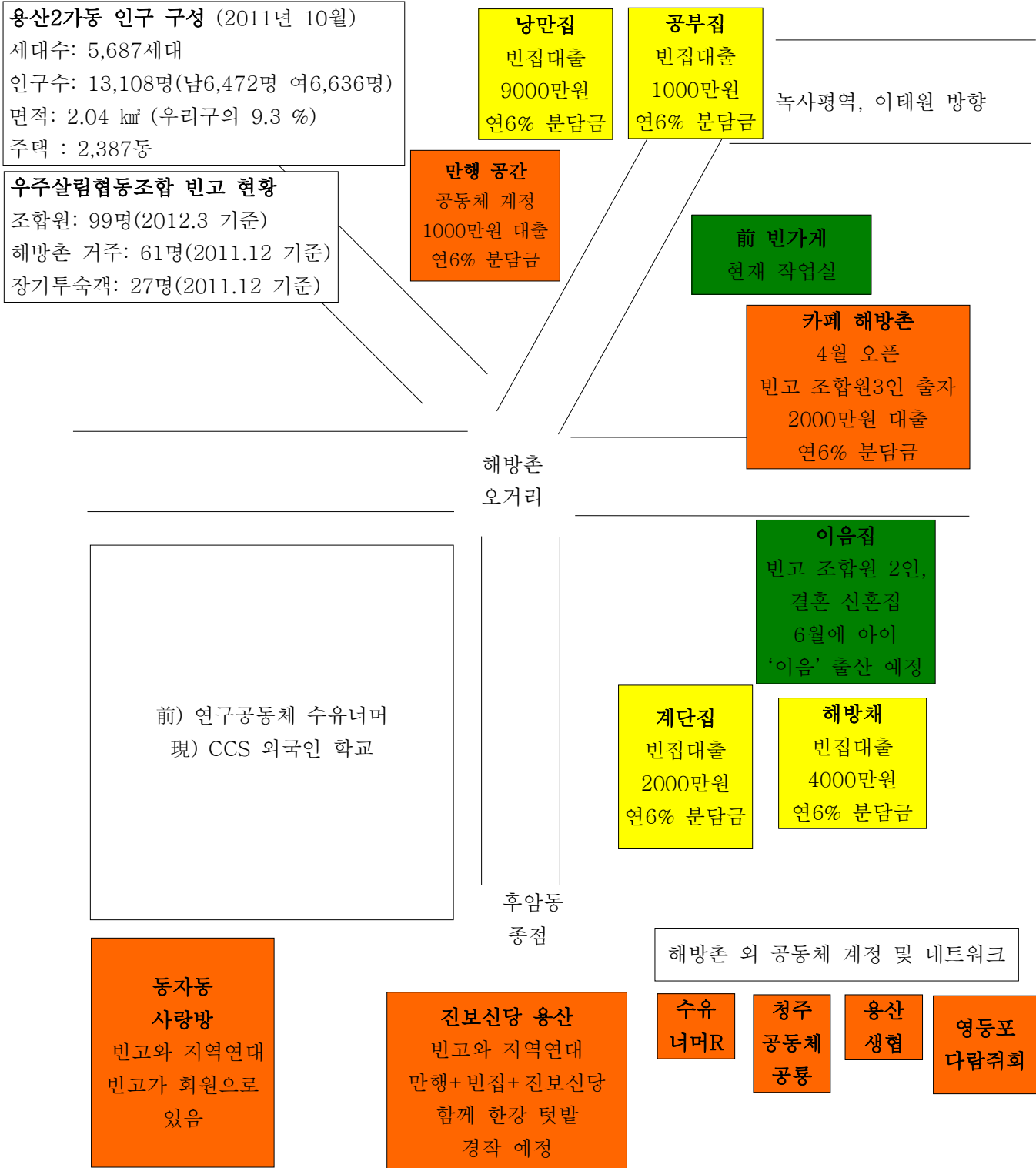
우주생활협동조합 빈고 조합원들 민

<사진 왼쪽: 빈고 출자금 통장 / 오른쪽: 2012년에 발행된 빈고 지역화폐>

“빈고는 집 보증금을 같이 모을 수 있는 중간기관이에요. 돈 문제로 개인적으로 얽히지 않을 수 있는... 예를 들어 한 집에 사는 사람이 각자 200만원, 300만원을 내서 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빈고를 통해 보증금을 모으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적고 빈고를 통해 조절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의도에서 빈고가 생겼어요.” (조합원 잔잔, 현 운영위원)

빈고가 만들어 진 후 공간대출을 위한 보증금은 협동조합 형태로 꾸려진 빈고를 통해 진행되었다. 5천 만원, 1억 등 큰 돈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돈을 빈고에 출자를 하고, 이를 모두 합한 후 또 다른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증금 형태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개인이 얼마 냈는지 꼬리표가 붙어서 따라오는 것이 아닌 '빈고'를 통해 돈이 '회석'되어 분배되는 구조이다. 그래서 돈을 낸 사람도, 대출 받는 사람도 편한 마음으로 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우주살림협동조합 빈고의 지리적 위치 및 주위 환경 + 보증금 및 분담금 현황>



2. 빈고와 기존 은행의 공통점과 차이점

항목	기존 은행	빈고
조직구성	대표, 사장(이사회 선출) 주주, 이사회, 임원, 직원	대표단(운영위원 1달 임기) 운영위원(자발적 참여/추천) 재정위원(회계 담당 2인) 조합원
노동자 및 임금	공채, 직급에 따른 연봉제 및 인센티브	운영위원 년 2만원 내외 재정위원 월 5만원 실질적 임금 및 노동자 없음
잉여금 분배	투자, 주주 배당	지구분담금 및 조합원 배당
예금주의 역할	예금, 대출, 상품 구매	출자, 교육, 조합 참여
상품	예금, 적금, 대출 등 다양한 상품 마련	출자, 대출의 방식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상품 마련

1) 잉여금의 쓰임

우선 기존 은행이 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돈은 정부에 의해 지폐에 인쇄되고 동전이 찍힌다고 ‘믿어진다’. 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돈은 정부가 발행한 것이 아닌 은행이라는 사기업에 의해 매일 창조되기 때문이다. 이 구조는 은행이 돈을 어떻게 창출하는지를 살펴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은행은 예금자가 맡긴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만들어낼 수 있으며 빌려줄 수 있다. 이는 지급준비율로 은행의 자산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을 다른 이에게 빌려줄 수 있는 법적토대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은행에 맡기면 은행은 90만 원의 자산이 생겨 이를 숫자로 구입하고, 다른 이들에게 빌려줄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자신들이 가진 돈 보다 훨씬 많은 돈을 다른 이들에게 빌려주고 있고, 있지도 않은 돈을 빌려주며 이자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1971년 이전에는 금 한 돈이 1달러의 가치가 있다면 은행은 10달러의 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금본위제였지만, 이것이 미국에 의해 폐지되면서 은행은 무한대로 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보통 지급준비율은 9:1이지만 20:1, 30:1이 넘는 은행도 무수히 증가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의해 은행은 자기자본비율(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을 8%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저축은행 몇 곳은 자기자본비율이 -11%에 이르거나 1%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⁴⁾

이제 은행은 대출-이자로 수익을 내는 것을 넘어서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 주택청약, 중국펀드, 암보험, 자동차보험 등은 물론이며 신용카드와 각종 포인트들을 만들어낸다. 예금주와 가입자들은 편하게 이들 상품을 사용하지만 그들에게 통장은 그저 잠시 담아두는 금고이자 스쳐가는 통로일 뿐이다. 하지만 은행의 주주들, 투자자 등은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간다. 이 수익은 사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으로 일부 환원될 뿐, 예금주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거나 돈의 선순환을 돕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해외 토지수탈이나 자원개발, 핵발전소 건설 등 장기적으로 인류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단기에 고수익을 내는 곳에 투자될 뿐이다.

4) 서울경제, “저축은행 44곳 적자”, 2012년 6월 1일

빈고의 경우는 빈고에 들어온 잉여금이 환경, 사람, 사회에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끼리 모여 잘 살자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나누자니까. 우리끼리 잘 살려면 돈 모아서 전셋집을 가면 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빈고에 출자를 하고 빌리죠.” (조합원 지음)

빈고의 잉여금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형태로 적립된다.

구분	비율	내용
지구분담금	잉여금의 10% 이상	지구와 지역에 이롭게 쓰일 수 있도록 총회를 거쳐 쓰임이 결정됨. 2012년 총회에서는 지구분담금이 132만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11개 단체를 1년간 매달 1만원씩 지원하고 활동하는 것으로 결정
출자지급금 = 배당금	출자금의 3%	출자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총회가 끝난 후 조합원들에게 배당되며 탈퇴 시 찾을 수 있음
빈고 적립금	잉여금의 30% 이상	위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빈고를 위한 적립금으로 책정

예를 들어 2011년 지구분담금의 경우를 살펴보자.

병역거부자의 날 행사	60,000원
일본반핵활동	90,000원
팔당 유기농단지 지키기	150,000원
포이동 공동체 지키기	240,000원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출자/후원	60,000원

2011년의 경우 잉여금이 600만 원 가량 발생했다. 이에 10%인 60만 원을 조합원에게 배당하거나 적립 또는 다른 곳에 투자하는 방식이 아닌 사회에 유용하게 쓰기로 결정했다. ‘지구분담금’이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지구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구에게 납부하는 돈으로,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 특히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모든 생명들과 나뉘야 할 돈”⁵⁾이다. 해방촌에 사는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어느 곳에서 현장에서 치열하게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2011년 지구분담금은 평화, 환경, 주거 등의 주제로 나뉘어 약소한 지원이 이뤄졌다.

이러한 잉여금의 사용에는 운영위원회의 주관적인 결정보다는 조합원의 다양한 참여로 이뤄진다. 자신이 살고 있는 용산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가까운 사랑방마을부터 챙기고, 팔당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 조합원은 팔당에 지원금을 보내자고 제안한 뒤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함께 만든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한다. 물론 기존 은행보다 규모가 크지 않아 도움 또한 미약할 수 있다. 하지만 빈고의 돈에는 돈 뿐만 아니라 함께 할 사람도 더불어 가고, 이들을 지지하는 많은 조합원들의 마음도 함께 간다.

2) 독특한 상품들

또한 기존은행과 차이점이 있다면 조합원들이 대출 상품을 직접 만들 수 있고, 이자율도 상황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출의 문턱 또한 낮다.

5) 빈집/빈마을 홈페이지 중 빈고 게시판 (2011년 7월 7일)

“쌘짓돈 대출 이런 것도 재밌어요. 작년 평가 때도 나왔는데 대출 프로그램이 빈고 조합원 중에 빈집에 살지는 않지만 조합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돈이라는 게 신기한 게 모아두고, 여유가 있는 자금이 되면 쌘짓돈 대출이나 다른 대출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돈을 돌리는 데 무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대출 프로그램이 주거 협동조합외에 ‘조합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자’라는 부분에서 빛나는 측면이죠.” (조합원 잔잔)

빈고의 특징을 드러내는 상품들을 살펴보자.

상품명	이율	내용
빈집대출	6%~12%	빈고를 통해 보증금 출자를 받아 공동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해 대출하는 프로그램 - 유효조합원 3인 이상의 추천 - 개인이 살기 위한 공간대출 불가 - 집사회의 참여 및 정기회의 공유 (의무사항은 아님)
공동체 대출	6%	빈고의 취지와 부합하는 공동체 혹은 단체에서 공간 보증금이나 내부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 가능한 프로그램 - 공동체 내 빈고 조합원 3인 추천 - 빈고와 빈고에 관련된 단체들과 네트워킹
빈쌘짓돈 대출	0%	빈고 자금의 일부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 -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 쓰고 한 달 안에 상환 - 조합원 모두가 함께 쓰는 비상금 - 빈고의 예산 중 210만원 이하로 책정 조합원 1인당 30만원 이하로 사용가능 - 조건: 유효조합원이며 신용카드를 없애야 함
출자금 내 대출	4%	조합원의 출자한 금액 이내에서 대출하는 상품
빈사업 대출	0%~결정	조합원 중 마을을 위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으면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 작년에 미용 기술을 가진 조합원이 10만원 대출을 받아 ‘헤어살롱 빈’을 열었으며 조합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머리를 잘랐음
(악성)채무탈출 대출	6%~12%	대출금, 빚을 빨리 갚아야 할 상황인 경우 채무탈출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 - 총액은 500만원이며 1인 당 200만원을 대출 가능 - 상환 기간, 방식, 이율은 협의를 통해 결정 - 조건: 조합원 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행자 대출	6%	작년에 조합원들의 요구로 신설된 대출 프로그램 - 여행의 목적과 여행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정보 등을 작성해서 제출
기타 대출	결정	병원비, 학자금 등 긴급대출이 있다.

“은행에 예금해도 돈을 잘 빌려주지 않아요. 은행보다 쉽게 빌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빈집 대출은 큰돈을 대출하지 않더라도 공간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큰 메리트예요.” (조합원 지음)

“빈고에서는 돈을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은 권력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빈집 구성원이 아닌 사람도 조합원이 되고, 외부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장점인 것 같아요.” (수유너머R 사비)

은행을 이용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돈을 어디에 투자할 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 등에 대한 고민을 주로 한다. 은행의 돈을 ‘어떻게’ 해 보겠다라던지, 은행에 자신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안을 하지 않는다. 이는 기업이 거대해지면서 수직적인 의사소통 구조를 갖고 수익의 부분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금주 어느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시스템이 되었고 더불어 예금주를 파트너가 아닌 그저 고객으로 본다는 차이점도 있다.

조합원 잔잔과 지음이 언급한 것처럼 빈고는 모아둔 돈을 잘 쓴다는 특징이 있다. 빈고의 경우 주거안정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필요하다. 보증금에 대한 안정성을 갖게 되면 나머지 출자금과 잉여금은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쓰일 수 있고, 또 쓰여야만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대출 프로그램 요구는 상시적으로 열리는 조합원 교육과 홈페이지 및 메일로 전해지는 각종 회의자료와 기타 보고서 요약 등이 크게 작동한다.

또한 대출 프로그램 중 더 독특한 부분은 ‘출자금 내 대출’이다. 자신이 낸 돈을 찾아 쓰는 데 이자를 내야 한다.

“출자를 반환하기도 해요. 이걸 운영위 결정 사항이에요. 소액인 경우 큰 문제가 없어요. 출자는 공동의 돈으로 묶인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결정해야 돼요. 개인의 돈이기도 하지만 공동의 돈이에요. 출자금내 대출은 조합원의 상품이고, 무조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돈을 찾아 가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예요.” (조합원 지음)

“출자금에서 돈을 빼 갈 때 묶여 있는 돈을 대출할 경우 빈고도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야 돼요. 협동조합은 뭔가 함께 하기 위해 공동으로 모은 돈이잖아요. 쉽게 빼갈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은행과 다른 거죠. 저는 처음에는 출자금은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협동조합에서는 출자금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그런데 여기에 이자를 받아요. 이게 함께 모으고 함께 뭔가를 하는 의미가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이익을 추구한다기 보다.” (조합원 잔잔)

은행과 협동조합 은행이 다른 이유는 여기서 분명히 나뉜다. 협동조합 은행은 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 각자 돈을 출자하고,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돈을 모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애쓴다. 그래서 개인이 돈을 냈지만 그 돈은 조합에 들어가는 순간 공동의 돈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출자를 하면 ATM기에서 돈을 빼듯 쉽게 인출할 수가 없다. 조합원을 탈퇴할 경우 출자금 전액이 반환되지만, 자신이 낸 출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 3%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이것이 협동조합 은행이 어렵고,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는 지점이다. 하지만 계산해보면

기존 은행과 차이가 없다. 요즘은 예금 금리가 낮아 큰 금액의 액수가 아니고서는 예금으로 많은 이자를 바랄 수 없다. 빈고의 경우 출자금에는 연 3%의 배당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만약 출자금 내 대출을 할 경우 3%의 이자를 내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원금이 보존된다. 즉 은행을 이용하는 것과 금액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고, 더 철저히 계산해보면 출자 배당금, 출자 지지금 등으로 은행보다 이익의 측면이 크다.

3) 이자에 대한 개념

빈고에는 여러 가지 독특한 상품들이 있고 소규모의 열려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기존 은행과 같이 대출에 따른 이자가 존재한다. 물론 예금한 돈에 이자를 주는 것처럼 빈고 또한 출자금에 따른 배당을 지급한다. ‘이자’라는 부분에서는 빈고와 은행은 갖은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빈고의 ‘이자’는 기존 은행과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조합원들은 이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선 빈고의 ‘이자’에 대한 외부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기본소득네트워크보다 더 낫긴한데, 그런데 계속 대출하고 갚는 걸 지속할 건가요? 수유R의 경우 돈을 쓸 때 파격적으로 쓸 때가 있어요. 공동숙소 보증금으로 천만 원을 그냥 지원한다던가, 기부를 한다던가. 누군가에게 빌리지도 않고 또 빌려준다한들 이율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빈고에 출자를 하면 돈을 파격적으로 쓰고 싶을 때도 출자-대출의 형태로 가야하나요? 계속 예금, 대출의 관행으로 가면 이걸 규모를 늘려나가는 것 아닌가요? 이것 자체가 자본주의적이지 않나요?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말이죠.” (수유너머R 고병권)

기존 은행이 운영되는 원리는 이자와 지급준비율, 그리고 1971년 이후에는 파생상품, 금융상품으로 구성된다. 예금주들의 돈이 은행으로 들어오면 이 돈의 90%를 다른 이에게도 빌려줄 수 있는 구조가 은행이 굴러가는 배경이다. 또한 이제는 은행은 주택융자상품 등을 대리 판매하고, 이를 투자 회사로 팔아 수수료를 받아 챙길 뿐이다. 즉 예금, 대출이라는 단순한 거래 배경 뒤에는 은행과 금융회사들이 만든 복잡한 상품들이 오고가고 있다. 은행이 갖고 있지도 않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수많은 은행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지점에서 고추장은 불편함을 드러냈다. 빈고가 은행의 모순을 인식하고 다른 형태의 금고 또는 은행의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출자자를 늘리고, 이들에게 대출을 유도하고 대출에 따른 이자를 받는 것이 기존 은행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는 것이다.

“빈고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부분을 강조하지는 않아요. 대출-이자가 아닌 더 좋은 선물의 방식을 찾는 데 동의하구요, 기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바뀌 나갈지 고민하고 있어요.” (조합원 지음)

고추장의 대출-이자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한 가지는 빈고의 의사결정 구조가 기존 은행과 다르다는 것이며 나머지는 이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은행 통장 몇 개씩은 가지고 있고, 새마을금고나 신협, 농협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에 통장이 있는 사람은 보통 예금주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협동조합 형식으로 구성되는 은행의 출자자이다. 하지만 은행의 예금주들에게 상

품을 결정하거나 이율을 정할 권리는 없다. 이 권리는 출자를 많이 하거나 해당 기업의 주식을 대거 보유한 자산가들에게만 주어질 뿐이다. 하지만 빈고는 협동조합의 원칙인 1인 1표제와 운영위원회 선출 등의 구조를 선택해 출자자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출자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많은 권리를 갖는 것을 방지한다. 더불어 이자에 대한 부분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돈은 돈으로 갚아야하는 등가교환의 방식을 애써 피해보려는 시도인 셈이다.

“(이자를 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내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아 이들이 나왔나요?) 기준을 만들면 되는데, 기준이 모호하긴 하죠. 원금을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받게 되면 문제가 되긴해요. 보증금은 큰돈이고 중요한 돈이니까. 그런데 이자는 원금이외의 금액이고, 대체해서 받아도 나머지 부분은 단체지원이나 다른 것들에 활용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지음이 대출한다면, 지음은 재무 관리나 회계를 좀 잘하잖아? 그럴 경우 지음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경우 이 교육비를 이자로 대신 할 수도 있고, 이자의 규모가 크거나 애매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청주에 있는 공룡의 우중산책님이 대출 신청을 했는데, 밭 대출이었어요. 이자를 농작물로 내겠다고 했는데 가능한거죠. 이 점이 다람쥐회랑 빈고가 다른 점이기도 하고. 좀 더 유동적일 수 있다는?” (조합원 켄짱)

경제학 이론에서는 “모든 인간의 상호작용은 중국적으로 비즈니스 거래이며, 또 우리 모두는 최소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가장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이다. 허나 현실에서는 등가교환의 방식을 넘어서는 일이 더 많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거나 자선을 베푸는 경우, 부모와 자식들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엇인가를 주고 받는 것 등등, 친한 친구나 이웃과 관계 맺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교환관계도 어떤 계급에 위치하고 어떤 권력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크다. 기존 은행을 이용하는 방식은 경제이론에서 강조하는 등가교환의 원칙이 고스란히 적용된다. 은행과 나는 1대 1의 관계이다. 돈을 빌렸으면 그만큼의 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대출자와 대부자의 관계를 넘어서지 않는다.

마르크스 식의 상품 교환에 따르면 상품을 생산하는 자들, 착취의 대상이 중요하다. 하지만 은행은 이것과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형성된다. 은행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존재하지만 이 노동자들이 돈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산자의 의미가 모호해진다. 허나 이를 독점하는 주체들은 존재한다. 생산하지도 않고, 이를 위해 시간을 투여하지도 않았지만 이를 소유하고 누군가에게 빌려준다. 빈고는 은행의 틀을 조금 바꿨다. 그래서 구성원들은 은행 총액의 주인은 없으며 금액 자체는 관계의 산물인 것이다. 각각의 출자자들의 돈이 모여 빈고의 총액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대출을 받을 때에도 출자자들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익명의 출자자들을 만나게 하고, 서로 돈 이외의 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드는 통로가 되고자 한다. 이러한 지점은 모스가 지적한 대로 선물과 선물을 준 의미와 사람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존재를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관계의 지속성을 통해 교환이 끝난 뒤에도 남아있는 가치에 주목한다.

빈고의 경우 원금이 보장될 경우 이자는 돈이 아닌 다른 형태로 받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기준이 모호한 부분은 있지만 조합원 교육이나 농작물, 각종 생산물을 이자로 받아 이것이 필요한 조합원에게 나눌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자’를 ‘선물’이라는 표현

으로 바꿔 부르고 있으며 규모의 경제를 펼치기보다 잉여금의 분배와 지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3. 빈고의 갈등과 가능성

개성이 강하고, 자기표현에 익숙한 조합원들이 많은 까닭에 빈고에는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빈고의 목적과 취지, 방법들이 추상적인 단어로 이루어져있고, 오랜시간의 교육 없이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존재한다. 이러한 배경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동안에도 눈에 띄는 갈등이 있었다. 그 중 빈집과 빈고에 대한 분리, 빈집적립금이 빈고적립금이 된 것에 대한 다른 의견, 빈집이 아닌 다른 공간에 대출한 경우 등이 논의 선상에 올랐다.

“빈집이 먼저 있었고 빈고가 생겼습니다. 빈고의 성격은 빈집의 마을금고였고, 빈집의 공공기금을 처리하는 목적으로 빈고가 생겼습니다. …… 빈고는 빈집의 금고였고, 사람들은 빈고에 출자 할 때, 빈집의 정신에 동의하여 출자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빈집자체의 금고가 빈고였던 상황에서 빈고에 선물한다는 것은 곧 빈집에 선물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 만행공간과 빈가게 대출은 빈고가 주거나 공간의 측면에 있어서 빈집만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빈고에 어떤 자금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곧바로 빈집에 쓰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공동체에 쓰일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빈집 거주자, 조합원 쿠우)⁶⁾

빈고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으로 빈집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꼭 빈집이 아니라도 대출을 하는 사례가 생기자 빈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견이 생긴 것이다. 빈고의 경우 총회도 거치고, 운영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 진행했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운영위원, 대표 및 조합원들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여과없이 꺼낸다.

“쿠우님의 윗글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 않을까? 쿠우님! 이것이 이번 논의의 전제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조합원 말라)

“빈고는 '빈집'이라는 이름의 주거공간의 회계기구(?)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빈집'의 운영과 유지를 전담하기 위한 회계로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본주의의 구조, 그리고 경제력이 우선되는 현실 속에서 가난뱅이이거나 기존의 질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신나고 재밌게 살 수 있을까?'라는 맥락의 고민을 하다 '빈집'이라는 색다른 주거방식으로 살기 시작했고 그렇게 살면서 느끼는, 단순히 함께 사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주거와 관련된 경제문제에 대한 답답함이나 울화(?) 등을 기존의 경제구조를 이용해 전복(이라고 하니 거창하지만)시키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조합원 켄짱)

6) ‘빈고의 갈등과 가능성’에서 언급된 조합원들의 이야기는 binzib.net 게시판을 참고했다. 본 보고서를 쓰기 전 조합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며, 보고서를 쓴 후 본격적으로 빈집과 빈고의 분리에 대한 논의가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 부득이하게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했다.

이러한 과정은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는 일이기도 하며 자칫하면 상처가 될 말들을 주고받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신들이 만들어가는 은행이기에, 또한 자신들의 돈이 쪼여 있는 빈고이기에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공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빈고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빈고는 거듭 갈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빈집에 기반한 조합이 점점 빈집에서 확장되는 추세인데, 이때 빈집 구성원과 이외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금융, 경제 용어는 많은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한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빈고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더 많은 조합원들이 빈고의 취지를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빈고=빈집이라는 구조로 이해하는 구성원과 외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빈고의 목적을 설명해야 할 지 정리될 필요가 있어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한 가지 빠지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삶'이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즐겁게 살 궁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에, 그리고 앞으로 조합과 주거/모임 공간을 통해 같이 살아갈 친구를 얻었기에 이들의 경제적 관계와 모델로써 빈고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다른 지역에 정착하게 되더라도 빈고의 출자 방식과 대출 방식 그리고 교육 자료는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며 다른 지역 공동체에도 빈고의 조직 구성이 모델로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III. 결론

빈고는 소비자협동조합인 한살림, 두레생협과는 다른 신용협동조합의 형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의 구성과 돈의 쓰임 또한 다른 방식으로 구성된다. 소비자협동조합은 좋은 생산품을 정직하게 만들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노고에 감사하며 함께 유통구조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빈고는 돈을 받고, 돈을 대출하고, 이자를 받는 은행이다. 즉 사람들이 '빚'을 만드는 은행인 셈이다.

우리는 보통 빚이라 하면 이중적인 의미를 떠올린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마음으로 지는 의무로서의 빚과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서 빚, 이 두 가지가 있다.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단순한 의무감 즉 어떤 식으로 처신해야 한다거나 누군가에게 뭔가 빚지고 있다는 느낌과 부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대답은 간단하다. 돈이다. 부채와 의무의 다른 점은 부채는 양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 측정은 돈으로 한다.”⁷⁾라고 했다.

딥고, 의존하는 관계망이 줄어들수록 은행에 지는 빚은 늘어만 간다. 참고로 올해 가계부채는 9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가계대출은 작년 9월 기준으로 840조 900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약 100조원 가량 증가했다. 이자만해도 56조 2000억원에 달하고, 국민 1인당 연간 110만원 꼴로 이자를 물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지난해 국민총소득 1173조의 4.8%를 차지한다. 즉 총소득의 5%정도를 이자를 내는 데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⁸⁾

이제는 편안한 곳에서 먹고 자기 위해 빚을 져서 집을 구해야 한다. 또 교육을 받기 위해 정부나 은행에 돈을 빌려야 한다. 땅을 사고 팔기 위해 다른 누군가의 돈을 끌어다 써야 한다.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생활하는 내내 나의 삶을 움켜쥐고 있는 건 '나 자신'이 아니라 끌어다 쓴 돈과 이자이다.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일 해야 하고, 쉬는 시간을 줄여야 하고, 다른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거나 위로하는 데 쓰는 돈이나 시간을 줄여야만 한다. 과연 어떻게

7) 데이비드 그레이버, 정명진 역(2011) 『빚: 그 첫 5000년』 부글북스, 41쪽

8) 참고: 서울신문 “가계빚 연 50조↑… 2010년 1000조 된다” (2011년 12월 5일)

된 사회인 걸까.

빈고의 ‘빚’은 사람의 목을 죄지 않는다. 돈으로 갚아야하는 ‘빚’은 생겼지만 ‘빚’만큼 친구가 될 수 있는 조합원을 만나게 된다. 또한 금융의 세계가, 대출의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교육도 시켜준다. 이를 통해 또 다른 ‘빚’이 생기게 된다.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베풀 수 있는 기회라는 측면에서의 ‘빚’말이다. 조합원에게는 돈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일을 조합을 위해 행해야 한다는 (은근한) 의무가 뒤따른다.

이에 우리는 다른 삶의 방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본 연구의 마지막 질문인 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지에 대한 대답은 이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할 수 있는 세상에서 돈이 아닌 다른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직접 행하는 것 말이다.

5. 참고문헌

단행본

- 가라타니 고진, 송태욱 역(2005) 『트랜스크리티프』 한길사.
강수돌(2011) 『경제와 사회의 녹색혁명』 문화과학사.
고병권(2005) 『화폐, 마법의 사중주』 그린비.
나카자와 신이치, 김옥희 역(2004) 『사랑과 경제의 로고스-물신 숭배의 허구와 대안』 동아아시아.
니시베 마코토, 이홍락 역(2006) 『우리끼리 만들어서 쓰는 돈』 돈키호테.
다나카 유 외, 김해창 역(2010) 『굿머니, 착한 돈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착한책가게.
데이비드 그레이버, 서정은 역(2009) 『가치이론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 그린비.
_____, 정명진 역(2011) 『빚: 그 첫 5000년』 부글북스.
데이비드 맥넬리, 강수돌 외 역(2011) 『글로벌 슬럼프』 그린비.
데이비드 하비, 최병두 역(2007) 『신자유주의』 한울.
보드리야르, 이상률 역(1992) 『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 문예출판사.
조너선 크롤, 박용남 역(2003) 『레즈』 이후.
칼 폴라니, 홍기빈 역(2009) 『거대한 전환』 길.
칼 폴라니, 박현수 역(1998) 『사람의 살림살이 1, 2』 풀빛
쿠리모토 신이치로, 양승필 역(2000) 『경제인류학』 예전사.
피에르 클라스트르, 홍성흡 역(2005)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정치인류학 논고』 이학사
홍기빈(2001)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말하다』 책세상.
_____(2012) 『살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 지식의 날개.

자료

- 대담자 박유하(2002) 「NAM과 지역통화운동-가라타니 코진과의 대담」 녹색평론 25호, 녹색평론사.
바바라 브란트(1996) 「공동체 돈 만들기 운동」 녹색평론27호, 녹색평론사.
박용남(2001) 「한발레즈-나눔과 보살핌의 공동체 실현」 녹색평론60호, 녹색평론사.
원용찬(2003) 「칼 폴라니의 실체경제와 지역문화운동:유통독점자본의 지역화 운동을 계기로」 문화경제연구 제6권 1호, 한국문화경제학회.
칼 세이팡, 콜린 윌리엄스(1998) 「레즈-상호부양의 교환체계」 녹색평론 40호, 녹색평론

사.

빈집/빈마을 홈페이지 binzib.net/x/